

[순모임 교재]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

에베소서 6:5-9

바울은 당시 사회 구조 속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며,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내가 맡은 일이나 교회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1. 바울은 '종들에게' 전혀 다른 순종을 요청합니다(엡 6:5-7). 바울은 종들에게 어떤 태도로 상전을 섬기라고 명령하나요?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최근 억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하듯 섬긴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종들의 순종에 '영혼'을 담으라고 합니다(엡 6:6-7). 바울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을 하라고 강조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라는 표현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바꿔주나요? 요즘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봅시다.
3.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요구합니다(엡 6:9). 바울은 상전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나요? 상전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은 당시 문화에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이끄는 위치에 있을 때, 복음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복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갈 3:28). 갈라디아서 3:28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라고 말하나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사람을 대하는 내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나요? 내가 무심코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5.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바꾸어 줍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내가 하는 일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나의 일상을 어떻게 재해석하게 하나요? 최근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한 일이나, 그렇게 감당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